

## Tracking(트랙킹)을 통한 영어 대화 유창성 향상 연구\*

문승재\*\*

아주대학교

한호

아주대학교

**Moon, Seung-Jae & Han, Ho. (2014). A study of the effects of tracking on the fluency in English conversa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15(3), 263-276.**

The present study is another effort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racking' in improving fluency of English speaking by EFL learners. Moon & Han (2013) already established the fact that the subject EFL learners significantly improved their naturalness in English reading after they practiced their pronunciation through tracking. The present study compared the naturalness of spontaneous speaking of the experimental group, who were given 11 tracking exercises, with that of the control group. To ensure the true 'speaking' environment, subjects were interviewed by native English speakers in pre- and post-experiment sessions. Three native English speakers evaluated the naturalness of all subjects' spontaneous speaking with respect to five areas: General Impression(GI), Segmental Pronunciation(SP), Stress & Intonation(SI), Thought Groups(TG), and Speaking Rate(S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e control group in most areas (except in SI and SR), demonstrating that tracking can be a very useful tool to improve English speaking skills not only in a guided speech setting (recording reading) but also in a natural speech setting (conversation).

[Tracking/naturalness/speaking fluency/트랙킹/자연성/발화유창성]

### I. 서론

EFL 영어학습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네 기능영역을 고르게 그리고 자연스러운 순서로 훈련을 하여 원어민 수준의 의사소통

---

\* 본 연구는 2012년도 아주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제1저자: 문승재, 제2저자: 한호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가지 기능 영역 중에서 듣기와 읽기는 이해(*comprehension*)기능이고, 말하기와 쓰기는 산출(*production*)기능으로서 이해기능 구사능력은 산출기능 구사능력보다 원어민의 경우에도 4배 정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ightbown & Spada, 2006). 외국어를 학습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산출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비공시적 기능인 쓰기보다 공시적 기능이 추가되는 말하기 능력은 영어학습의 경우, 특히 EFL 환경에서는 영어 의사소통기회의 부족으로 그 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에서 말하기 교육은 중요한 주제이지만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는 말하기 교육에 대한 관심만큼 실제적인 교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해능력을 주로 측정하는 대학입시의 영어 시험으로 인해 중고교 교육현장에서 더 심하고, 그보다는 자유롭게 영어 교수 및 학습이 가능한 대학에서도 영어 말하기 교육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최근에 기업체에서 영어산출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각종 영어말하기 시험을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어말하기 능력의 근간은 유창성과 정확성이며 이 둘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발음, 어휘, 문법의 수준 및 담화구조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어말하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본 요소들을 개별적이거나 통합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어말하기 능력의 훈련을 위해 여러 교수방법들이 고안되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유아 초등 영어교육 현장과는 달리 중등교육 이상에서 영어 발음을 훈련하기 위한 방법이 수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김선진, 2007). 물론 외국어 학습에서 발음의 중요성에 대한 논란은 있다. 외국어 발음이 원어민의 발음과 차이가 나더라도 발화 자체를 볼 때 어휘나 구문이 정확하면 유창성이 담보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데, 궁극적으로는 어휘나 구문의 완성도가 일정 수준에 오른 경우에 외국어의 전반적인 유창성의 판단에서 발음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볼 수 있다(Brown, 2001).

외국어 발음은 크게 두 가지, 분절음(*segment*)의 발음과 초분절적 요소(*suprasegmental features*)의 구사에 대한 훈련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우리나라 영어교육에서 영어 분절음의 훈련은 유아 초등 영어교육에서 파닉스(*phonics*)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중등이나 성인 영어교육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초분절적인 요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은 강세와 억양인데, 그것들은 분절음의 발음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따라서 영어 발음교육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주로 분절음 발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Bowen, Madsen과 Hilferty(1985)가 지적했듯이 외국어 의사소통에서 분절음의 오류보다는 초분절음적 요소의 오류가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초분절음적 요소의 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초분절음적 요소들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훈련

시킬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은 그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예성(2005)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어교사들은 발음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수업시간에 발음교육에 시간을 거의 할애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원어민의 발음이 녹음된 내용을 듣고 반복시키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김종훈(2013)의 연구에서도 예비영어교사들의 중등 영어수업 관찰 결과, 대부분의 수업에서 듣고 따라하기 및 최소대립쌍(minimal pairs)를 이용한 발음 연습을 주로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동일 연구에서 교사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영어 발음교육의 중요성과 초분절음적 요소의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높으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발음훈련 방법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는 트랙킹(tracking)이라는 영어 발음 학습방법이 말하기 능력의 향상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고자 한다. 트랙킹 과정에서는 외국어 학습자가 원어민의 발음으로 녹음된 자료를 듣고 바로 따라 하며 의식적으로 원어민 발음과 유사하게 발성하도록 훈련한다. 본 연구에서는 트랙킹이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발음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을 향상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 영어말하기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 1) 트랙킹이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발음 개선에 도움을 주는가?
- 2) 트랙킹이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영어말하기 능력평가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영어 발음교육

외국어 교육에서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론화된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은 습관화를 목표로 학습자가 원어민의 발음으로 녹음된 음성자료를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하는 식의 연습을 하는 것이 주된 영어 발음 교육 방법이었다. 청화식 교수법에서는 정확한 의미전달을 목적으로 발음의 정확성이 강조되었고 어휘의 분절음 발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외국어 말하기 교육에서 중요한 주제였다.

의사소통위주의 외국어교수법(Communicative Approach)의 발달과 더불어 영어 말하기에서는 더 이상 분절음의 정확한 발음이 주된 목표가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초분절음적 요소들의 중요성도 균형 있게 대두되었다. 초분절음적 요소 가운데 운율적 자질이 담화정보 전달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즉 발음의 정확성보다는 강세, 억양, 연음 등에서의

자연스러움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부각되었다(Dirven & Oakeshott-Taylor, 1984).

외국어 교육에서 분절음의 정확한 발음보다 초분절음 영역의 완성이 쉽지 않은 이유는 생물학적 연령에 따른 발음의 화석화 현상 때문인데, 영어 발음교육에서는 화석화 현상을 경험한 이후에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을 훈련 시키는 것이 중등 및 성인영어 말하기 교육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Selinker, 1972).

김희경(2010)의 연구에서는 43명의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발음교육에 대한 인식이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영어 발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수업시간에 원어민에 의해 발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 연구는 학습자들이 발음교육을 받은 후에는 자신들의 발음이, 특히 강세와 억양과 같은 초분절음적 요소들에서 개선되었다고 느꼈음을 보고하면서 영어수업에서 초분절음적 요소들을 강조하는 발음교육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정현성과 정소현(2008)에서는 영어 발음교수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요구분석 조사를 실시하였다. 112명의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5% 이상의 응답자들이 발음교육의 필요성을 의식했지만 시간 부족과 교육과정에서의 발음 평가 체제의 부재로 말미암아 수업시간에 실제로 발음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발음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시간의 83% 정도를 분절음 발음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강세 및 억양의 학습과 영어발음을 측정할 도구의 개발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들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영어학습에서 발음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들이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연구자들이 실제적 훈련방법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문승재와 한호, 2013). 영어 발음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연스러운 발음을 구사하도록 훈련시키는가인데, 아래에서 문승재와 한호(2013)에서 활용한 영어발음 훈련 방법인 트랙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2. 트랙킹

영어발음을 훈련하기 위한 방법들의 다수는 반복연습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복연습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Gilbert, 2008, p. 33).

- ① 기억과 주의집중에서는 근본적으로 리듬이 주요 요소로 작동한다.
- ② 조음기관의 반복 훈련은 신경통로를 활성화 한다.
- ③ 원어민의 발음을 자주 듣고 스스로 발화음을 수정하는 것은 올바른 발음의 모델을 청각기제의 내적인 표상으로 구축한다.
- ④ 되뇌어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단기기억을 절차적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듣고 따라 하기 방식이 외국어 발음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던 청화식 교수법에서의 듣고 따라 하기에는 풍부한 문맥의 부재와 따라 하는 의미 단위들의 연결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한 것이 트랙킹이라는 방법인데, Acton(1984)에 따르면 트랙킹이란 발화자가 말한 것을 학습자가 단어 단위로 그 즉시 바로 바로 따라 말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발화산출 실험인 shadowing 기법과 유사하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억양과 강세 및 리듬들에 초점을 맞추어 ‘추적(tracking)’ 연습을 하게 되는데, 따라 말하는 내용이 일련의 이야기로서 문맥이 풍부하고 유의미한 연습을 이끈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청화식 교수법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트랙킹은 대개 동영상이나 녹음 내용을 따라 하거나 원어민과 마주하여 원어민의 이야기를 따라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동영상이나 녹음물의 등장 인물이나 마주한 원어민을 ‘반추(mirroring)’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트랙킹을 하면서 단순히 발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위들을 따라 할 수 있어 발음영역을 넘어서 일반적인 말하기 능력의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특히 화석화로 인해 불완전한 발음을 가진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cton, 1984).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트랙킹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김선진(2007)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4주간의 실험을 통해 트랙킹으로 훈련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영어말하기 평가 결과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연구기간이 짧아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승재와 한호(2013)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트랙킹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에게는 한 학기동안 트랙킹을 연습하도록 처치하였으며 사전-사후 결과 검증 설계를 통해 실험집단의 영어 발음이 더 자연스러움이 밝혀졌다. 이 실험에서의 사전-사후 검증 방식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원고를 주고 읽게 하였고 읽은 것을 녹음한 뒤 원어민 평가자들이 일반적 인상(General Impression: GI), 분절음 발음(Segmental Pronunciation: SP), 강세와 억양(Stress & Intonation: SI), 사고단위(Thought Group: TG), 발화속도(Speaking Rate: SR) 등의 다섯 영역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 결과, 다섯 영역 모두에서 트랙킹을 연습한 집단이 더 높은 평가점수의 상승을 보였다. 이 연구는 트랙킹의 효과를 정교하게 검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원고를 읽고 녹음하는 것은 일종의 제한된 말하기 상황이므로 일상적인 대화를 통한 말하기에서의 발음의 자연스러움과 유창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승재와 한호(2013)의 연구의 틀을 유지하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발음과 말하기 능력의 향상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실험은 2012년 2학기 수도권 소재의 A대학 영어영문학과 전공선택과목 중 두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 사전과 사후평가에 모두 참여한 35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영어학개론 2>를 수강하는 학생 16명을 통제집단으로, <영어음성학>을 수강하는 19명을 실험집단으로 하였는데, 두 과목을 동시에 수강한 학생은 없었다. 실험집단은 세 명이나 네 명이 한 조로 모두 여섯 조로 구성되었다.

#### 2. 실험절차

##### 1)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를 위한 인터뷰

본 연구의 목적은 문승재와 한호(2013)에서 입증되었던 글을 읽는 데에서 검증된 발음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트래킹의 효과가 일반 대화에서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읽기가 아닌 원어민과의 대화를 사전평가(학기초) 및 사후평가(학기말) 자료로 녹음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학기초와 학기 말, 2회에 걸쳐 아주대학교 원어민교수와 5분정도씩 개별인터뷰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학기 후에 영어 말하기능력의 향상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의 내용은 학생들의 영어회화 수준 자체가 반영되지 않도록 평이한 수준으로 본 연구자들과 원어민 교수 3인이 함께 의논하여 세 가지로 정했다(부록1). 이는 또한 세 명의 원어민이 일관된 내용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전과 사후 인터뷰는 학생들과 원어민 교수들과의 시간에 맞춰 정하였기 때문에 같은 사람과 두 번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다. 후에 평가할 때 사전 인터뷰인지 사후 인터뷰인지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인터뷰에서 모두 같은 세 세트 중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원어민 교수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직접 녹음하였는데, 한 명은 휴대폰을 이용하였고, 두 명은 MP3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 2) 트래킹 처치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모두 열 한 차례의 트래킹 과제를 부여 받았다. 트래킹 과제는 녹음과 동료평가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트래킹 과제는 A대 “e-class” 시스템(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업자료를 올리거나 내려받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주 화요일에 올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자정까지 녹음하여 녹음파일을 조별 토론방에 올리도록 하였다.

각 조의 조원들은 자신의 녹음을 제외한 다른 조원들의 녹음파일을 듣고 그 주 목요일까지, 녹음이 원본의 억양이나 휴지 등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조원들간의 평가 외에 다른 평가는 없었다. 월요일까지 녹음파일을 올렸는지(20%)와 목요일까지 다른 조원에 대한 평을 하였는지(5%)의 여부를 성적에 반영한다고 공지하고 실제로 반영하였다.

트랙킹 과제의 내용은 매우 쉽고 간단한 2분 이내의 이야기(5편)로 시작하여, CNN, Good Morning America 등의 방송 3편, 긴(4분) 영국영어발음의 이야기 1편, 영화(Love Story)의 한 장면(1분 30초분량), 처칠의 연설문(5분10초분량) 등,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졌다

### 3) 사전인터뷰와 사후인터뷰 자료 편집

인터뷰를 진행한 원어민 세 명이 모든 인터뷰를 듣고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 진행자의 신원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전체 인터뷰 녹음자료에서 진행자의 말 부분을 모두 수동으로 삭제하였다. 편집된 녹음파일의 명칭은 번호만으로 표시하여 발화자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렇게 편집된 자료는 사전과 사후의 구별없이 무작위로 섞여서 세 명의 원어민에게 전달되었다.

### 4) 평가 방법

본 실험의 평가자는 선행연구(문승재, 한호 2013)에서 평가를 했던 동일인으로 A대 인문대학과 기초교육대학에 재직 중인 3인의 전임교원이다. 이들은 한국 대학에서의 교육경력이 5년에서 20년으로 매우 풍부하였고, 트랙킹의 효과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 평가는 학기가 끝난 후, 사전, 사후평가 구별 없이 무작위로 섞인 자료를 대상으로 실행되었다. 따라서 평가자들은 사전과 사후 자료에 대하여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평가자는 모든 실험참여자의 발화자료를 다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모아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일관된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들에게 한 번에 모든 자료를 평가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기준은 선행연구를 따라 발화의 “자연스러움”을 일반적 인상(General Impression: GI), 분절음 발음(Segmental Pronunciation: SP), 강세와 억양(Stress & Intonation: SI), 사고단위(Thought Group: TG), 발화속도(Speaking Rate: SR)의 다섯 가지 지표에 대하여 각각 1점(매우 부자연스러움)에서 10점(매우 자연스러움)으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GI는 발화를 들었을 때 첫 10초 내에 영어말하기 능력의 인상평가를 계량화한 것이다. SP는 분절음 발음의 명확성 평가 지표이고, SI는 강세와 억양을 평가하는 지표다. TG는 문장의 구절들을 휴지를 이용하여 적절한 의미단위로 묶어서 말하는지를 평가하는 지

표이며, SR은 발화속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 IV. 연구결과

##### 1. 실험 기초 통계

35명의 GI, SP, SI, TG, SR에 대한 평정자 3명의 점수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정자간 신뢰도(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사전과 사후 두 시점에서 5개 변인에 대한 평정자들의 측정이 56.8%~83.3%의 일치로 대부분 중등도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p=0.000$ ).

**표 1**  
각 변인별 평가자간 신뢰도

변인	사전	사후
GI	.830	.804
SP	.791	.729
SI	.674	.568
TG	.770	.665
SR	.780	.833

실험을 실시하기 직전에 측정한 구성개념들의 기저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사전GI, 사전SP, 사전TG, 사전 SR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전 SI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 = -2.642$ ,  $p < .05$ ) 집단별 각 개별 종속측정치와 사전평균과 표준편차,  $t$  값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동질성 비교-사전검사 측정치

	실험집단(N=19)	통제집단(N=16)	$t$	$p$
	M(SD)	M(SD)		
사전 GI	7.4(.7)	7.8(.9)	-1.375	.179
사전 SP	7.4(.6)	7.8(.5)	-1.844	.074
사전 SI	7.6(.5)	8.1(.6)	-2.642*	.012*
사전 TG	7.4(.7)	7.9(.8)	-1.648	.109
사전 SR	7.3(.7)	7.6(.9)	-1.214	.233

교수방법을 달리한 집단에 따라 사후 GI, SP, SI, TG, SR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GI, SP, SI, TG, SR를 각각 통제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먼저 필요한 기본 가정인 독립성 가정을 검증한 결과 SI를 제외하고(SI:  $F=6.981, p=.012$ ) 집단에 따라 공변인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GI:  $F=1.889, p=.179$ ; SP:  $F=3.401, p=.074$ ; TG:  $F=2.716, p=.109$ ; SR:  $F=1.473, p=.233$ ) 독립성이 확보되었으며 선형성 가정을 검증한 결과, 선형성이 확보되었다(GI:  $F=34.770, p<.001$ ; SP:  $F=19.910, p<.001$ ; SI:  $F=22.223, p<.001$ ; TG:  $F=19.288, p<.001$ ; SR:  $F=18.090, p<.001$ ).

각 직선 회귀계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GI:  $F=.534, p=.797$ ; SP:  $F=1.626, p=.203$ ; SI:  $F=.686, p=.609$ ; TG:  $F=1.596, p=.207$ ; SR:  $F=1.990, p=.126$ ) 회귀계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공변량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사전-사후 평가 결과 분석

각 변인의 사전 값(사전GI, 사전SP, 사전 SI, 사전TG, 사전 SR)을 공변인으로 하여 교수 방법을 달리한 집단에 따른 각 변인의 사후 값(사후G, 사후SP, 사후 SI, 사후TG, 사후 SR)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후 점수의 추정된 주변 평균을 비교하였다. 사전 값 중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SI 사전 점수 평균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후 점수의 비교를 위해 사전 점수를 통계적으로 추정하여 동일하게 만들어 준 후에 사후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그것이 표3의 “조정된 사후 점수”이다.

표 3에서는 통계치로 추정을 하다보니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그 오차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Bonferroni를 사용하였다.

## 3

		N								(Bonferroni)	
			M	SD	M	SD	M	SE	(a-b)	<i>p</i>	
GI	(a)	19	7.37	.73	7.51	.80	7.631	.12	.380*	.049	
	(b)	16	7.75	.91	7.40	.74	7.251	.14			
SP	(a)	19	7.44	.65	7.32	.66	7.422	.11	.153	.364	
	(b)	16	7.81	.53	7.40	.49	7.269	.12			
SI	(a)	19	7.63	.54	7.74	.55	7.892	.10	.327*	.035	
	(b)	16	8.15	.61	7.75	.54	7.565	.11			
TG	(a)	19	7.44	.68	7.56	.64	7.675	.13	.560*	.007	
	(b)	16	7.85	.82	7.25	.76	7.115	.14			
SR	(a)	19	7.26	.74	7.37	.67	7.453	.12	.345	.061	
	(b)	16	7.60	.92	7.21	.69	7.108	.13			

4

8

## 4

## General Impression

	SS	df	MS	<i>F</i>	<i>p</i>
( )	10.830	1	10.830	38.174***	.000
	1.187	1	1.187	4.184*	.049
	9.078	32	.284		
	1966.333	35			

\*  $p < .05$ , \*\*  $p < .01$ , \*\*\*  $p < .001$ 

## 5

## Segmental Pronunciation

	SS	df	MS	<i>F</i>	<i>p</i>
( )	4.565	1	4.565	21.100***	.000
	.184	1	.184	.849	.364
	6.923	32	.216		
	1903.556	35			

\*  $p < .05$ , \*\*  $p < .01$ , \*\*\*  $p < .001$

## 6

## Stress Intonation

	SS	df	MS	F	p
( )	4.755	1	4.755	30.190***	.000
	.767	1	.767	4.872*	.035
	5.040	32	.158		
	2108.111	35			

\*  $p < .05$ , \*\*  $p < .01$ , \*\*\*  $p < .001$ 

## 7

## Thought Group

	SS	df	MS	F	p
( )	6.524	1	6.524	21.751***	.000
	2.517	1	2.517	8.391**	.007
	9.598	32	.300		
	1943.444	35			

\*  $p < .05$ , \*\*  $p < .01$ , \*\*\*  $p < .001$ 

## 8

## Speaking Rate

	SS	df	MS	F	p
( )	6.639	1	6.639	25.229***	.000
	.989	1	.989	3.757	.061
	8.421	32	.263		
	1878.000	35			

\*  $p < .1$ , \*\*  $p < .05$ , \*\*\*  $p < .001$ 

가  
 , 4 8 , 가 GI,  
 SI, TG  
 .  
 가 SR 가  
 ,  
 .  
 가 (SP)  
 가 가 (2013)

일치하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상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트래킹이 분절음 보다는 초분절음적 요소들의 훈련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둘째, 한 학기간 처치가 화석화를 겪은 성인 영어학습자들에게 분절음의 발음을 향상시키는 데에 충분한 기간은 아닐 수도 있으며, 셋째, 듣는 즉시 바로 바로 단어 단위로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원어민의 발음 속도를 쫓아가게 되므로 개개의 분절음 발음에 중점을 두며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관찰된 사실은 초분절음적 요소를 구사하는 발음 능력의 향상이 대화에 있어서 말하기의 자연스러움, 더 나아가 유창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V. 결론

문승재와 한호(2013)에서 트래킹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평가 설계에서 발음의 자연스러움을 측정하면서 피험자들이 글을 읽고 녹음한 것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인상, 강세/억양, 사고단위, 발화속도 등에서 트래킹 처치를 받은 실험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어 말하기의 유창성을 다룰 때에는 일상적인 대화에서의 말하기를 판단 근거로 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문승재와 한호(2013)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트래킹이 일상적인 대화에서의 말하기에서 유창성을 담보해주는 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실험설계를 채택했지만 사전-사후 평가에서 녹음된 따라 읽기가 아니라 원어민과의 인터뷰에서 일상적인 대화의 말하기를 평가한 결과,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분절음의 발음 영역과 강세/억양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높은 향상도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트래킹은 일반적인 영어 말하기 평가를 대비한 훈련 방법으로 추천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영어 인증시험들에서 영어말하기 평가가 필수적으로 자리잡고 있고, 기업들에서 영어 말하기 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로 미루어볼 때, 본 연구에서 입증한 트래킹의 효과가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트래킹이 분절음의 훈련보다는 초분절적 요소들의 훈련에 더 좋은 방법이고,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화석화가 진행된 성인학습자보다 결정적 시기 이전에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는 분절음과 초분절음적 요소의 발음 훈련,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유창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연령, 보다 장기간에 걸친 트래킹의 효과 검증 등이 후속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교사나 학생 대상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서 발음교

육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어민 발음과 유사한 자연스런 발음은 유창성의 요인이면서도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를 통해 발음에 대한 자연스런 훈련이 궁극적으로 말하기의 유창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교육현장에서는 트랙킹을 비롯한 영어 발음 훈련 활동들을 활발하게 이용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선진. (2007). *영어발음 향상방안으로서의 tracking 활동: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수원.
- 김예성. (2005). *고등학교 영어교사의 발음 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김종훈. (2013). 영어 발음교육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의 인식. *언어과학연구*, 65, 47-78.
- 김희경. (2010). 영어발음교육에 대한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인식. *새한영어영문학*, 52(4), 241-264.
- 문승재, 한호. (2013). Tracking을 이용한 영어말하기 능력 향상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55(2), 73-92.
- 정현성, 정소현. (2008). 영어발음교육에 대한 현직 교사 요구조사. *현대영어영문학*, 26(3), 129-164.
- Acton, W. (1984). Changing fossilized pronunciation. *TESOL Quarterly*, 18(1), 71-85.
- Bowen, J., Madsen, H., & Hilferty, A. (1985). *TESOL Techniques and Procedures*.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s.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2nd ed.). New York: Longman.
- Dirven, R., & Oakeshott-Taylor, J. (1984). Listening comprehension (Part 1). State of the art article. *Language Teaching*, 17, 326-343.
- Gilbert, J. B. (2008). *Teaching Pronunciation: Using the Prosody Pyrami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ghtbown, P., & Spada, N. M. (2006). *How languages are learn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elinker, L. (1972).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0, 209-231.

부록  
Interview Questions

Set 1

Tell me about your family.      What does \_\_\_\_\_ look like?

What's your favorite place for lunch?      Why?

What would you change about Seoul, if you could, to make it better?

Set 2

Tell me about yourself.      What are your hobbies?

What is your favorite band or type of music?      Why?

What would you change about Ajou to make it better?

Set 3

Tell me about your hometown.      What is something good about it?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Why?

What would you change about Suwon to make it better?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문승재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Tel: (031)219-2827

Email: moon@ajou.ac.kr

한호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Tel: (031)219-2821

Email: hhan@ajou.ac.kr

Received 15 June 2014

Revised 5 August 2014

Accepted 20 August 2014